

제주43사건으로 침묵된 언어 표현*

문순덕**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제주43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언어 표현 | <참고문헌> |
| III. 살아남은 자들이 기억하는 언어 표현 | |

<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제주43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생존자 등) 인지하는 언어, 간접 경험자(가족의 경험 등을 통한 기억)와 사회적 경험자(이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제주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인지하고, 막연히 알고 있는 제주사람들)들이 인지하는 언어 표현을 다루고 있다. 즉 제주사회에서 제주43사건임을 짐작할 수 있는 언어(단어, 문장 등)들을 확인해 보고, 특정 집단의 경험과 기억을 통한 유형적 고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등을 경험자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제주43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언어 표현으로 가족들의 죽음과 이산, 마을 수비대 등을 들었다. 살아남은 자들이 기억하는 언어 표현으로 예비검속, 연좌제의 피해, 살아남은 자들의 의도적 침묵, 후손들의 재기억 등을 통해 침묵된 언어 표현을 다루었다.

주제어 : 제주43사건, 침묵된 언어, 재기억, 학살

* 이 글은 국제비교한국학회 제20회 학술대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공동 학술대회(2010. 10. 15. ~ 17.)에서 발표한 “4.3과 제주여성의 이산 및 침묵된 언어”를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I. 서론

제주사람들은 한국전쟁보다도 제주43사건(이하 ‘43사건’이라 함)을 위협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43사건을 기록하고 정리한 보고서¹⁾와 증언자료집이 발간되었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43사건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역사적·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물이 있고, 문학작품으로 형상화되기도 했는데 이 글에서는 구술자료를 분석하여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구술 시점²⁾에서 구술한 언어 표현들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이 사건 관련 증언자들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건의 참상을 짐작케 하는 표현들을 살펴보고, 사건을 경험한 후 살아남아서 기억하는 표현들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주사회에서 43사건임을 짐작할 수 있는 언어(단어, 문장 등)들을 확인해 보고, 특정 집단의 경험과 기억을 통한 유형적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등을 경험자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다.

먼저 43사건을 간단히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 2003 : 536쪽).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연구 내용은 기존에 조사된 구술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43사건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자료³⁾에는 <제주43연구소편(1989), 『이제사 말함수다 1~2』> ,

- 1)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 43사건 자료집』1-11권(2001~2003),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2003) ; 허영선, 『제주 4.3』(제주4.3연구소 편, 2006) ; 박찬식, 『4.3과 제주역사』(도서출판 각, 2008)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화해와 상생 : 제주 4.3위원회 백서』(2008) 등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 2) 구술 시점이란 구술자료집이 발간된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적어도 1~2년 전에 구술한 시기를 의미한다. 자료에 따라 구술 시기와 발간 시기가 다르다.
- 3) 구술자료들을 보면 43사건 직접 경험자들의 이야기들로 이들은 처음부터 산으로 올라가서 생활한 사

〈오성찬 편집(1991), 『사삼사태로 반 죽었어, 반!』〉, 〈제민일보 43취재반(1994~1998), 『43은 말한다 1~5』〉, 〈제주43 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편(1994),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7.7만벵디유족회(2002), 『7.7만벵디 예비검속 희생자 자료집-만벵디에 묻힌 진상과 증언』〉, 〈제주 43연구소 편(2002) 『이제사 말함수다 3, 무덤에서 살아 나온 43 ‘수형자’들』〉, 〈조성윤·지영임·허호준(2007), 빼앗긴 시대 빼앗긴 시절-제주도 민중들의 이야기〉, 〈제주 43연구소 편(2009), 그늘 속의 43〉 이외에도 〈구슬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가 있다.

논의 대상으로 삼은 구술자료들은 43사건을 직접 겪은 자신의 이야기, 부모와 형제가 피해자가 되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신의 집안이나 마을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알려준다. 또한 43사건 피해자의 증언자료 중에서 피해자들에게 강요된 침묵과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화문을 추렸다. 구술자료는 제보자의 주관적 경험과 기억을 정리한 것이지만 증언과 생애사는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재현한 결합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43사건을 어떻게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지를 표현된 문장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침묵된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통 언어학에서 말하는 ‘언어의 침묵, 소멸, 죽음’ 등은 모국어(소수자들의 언어 등 지역어 포함)를 보존하지 않을 때 겪어야 하는 언어의 사멸을 뜻하지만 여기서 말하려는 ‘언어의 침묵’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사회적 환경을 가리킨다. 제주사회에서 침묵을 강요받은 언어로 43사건을 들 수 있으며, 이 침묵된 언어는 제주사람들에게는 공포의 언어였고, 의도

랍들, 타의적으로 입산한 사람들, 정든 집과 마을이 화염에 휩싸이자 어쩔 수 없이 이웃마을이나 연고가 있는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던 경험의 기록들이다. 특히 수형자들의 증언들은 예비검속에 걸려서형을 받고 복역한 사람들의 실상이 들어있다.

. 7.7만벵디유족회는 1950년 음력 7월 7일 석알오름 탄약고에서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학살되었으며, 주로 한림과 대정(무릉지서 검속자) 사람들이 만벵디에 묻혔는데, 이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 『사삼사태로 반 죽었어, 반!』(오성찬 편집)은 제주시 봉개동에 거주하는 한 노인의 생애사를 정리하면서 그가 경험한 43사건의 참상을 기록한 자료이다.

.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5권은 6년 6개월간 제주사회를 초토화시킨 역사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투시하고 있다. 이 책은 1990년부터 <제민일보>에 연재한 결과물로 43사건 직접 경험자들의 생생한 증언록이다.

. 『제주여성 근·현대사 구술자료 ①: 구슬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2004)는 일제강점기부터 조사 시점인 2003년까지 제주여성의 현장체험을 채록하였다. 이 구술자료집은 제주지역 25명, 부산지역 19명, 서울지역 6명, 일본 오사카지역 23명 등 제주출신 여성 73명의 개인생활사가 정리되었다.

적으로 죽어야만 하는 언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침묵된 언어란 단어라기보다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심리적 상태를 표현한 문장으로 보고자 한다.

‘침묵’의 사전적 의미는 “①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음. 또는 그런 상태. ② 정적(靜寂)이 흐름. 또는 그런 상태. ③ 어떤 일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비밀을 지킴. 또는 그런 상태.” 등이다. 이 정의를 보면 이 글에서 말하려는 침묵된 언어는 주로 ③에 해당된다.

‘침묵은 금이다.’는 속담처럼 자발적 침묵은 허언(虛言)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려는 침묵은 진언(眞言)을 뇌 속에 저장해 두고 입안에서만 살게 놔둬야 하는 강요된 묵비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43사건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의 분노와 억울함 등 상처 입은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내지 못하고, 치유할 수 없었던 상황을 표현한 단어나 문장을 침묵의 언어 표현으로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즉 침묵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약 40년간⁴⁾ 제주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가둬두고,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공포의 언어로 기억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침묵이란 자발적 침묵, 강제적 침묵이 다 포함된다. 43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한 공포, 고통, 억울함,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잘못 말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무서움의 대상이었다. 또한 친척이나 이웃의 사건 경험자를 통하여 듣게 된 간접 경험자들도 드러내 놓고 그 심각성을 전파할 수 없는 금기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침묵의 언어 표현이란 43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생존자 등) 인지하는 언어, 간접 경험자(가족의 경험 등을 통한 기억)와 사회적 경험자(이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제주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인지하고, 막연히 알고 있는 제주사람들)들이 인지하는 언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여러 구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43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언어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억하는 언어 표현을 다루고자 한다.

4) 제주사회에서 43사건의 피해자들은 분노와 공포의 감정을 억제하며 살아왔으며 이를 표출하려고 노력했으나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40년이 지난 1989년 제주4.3연구소가 개원되면서 비로소 공식적으로 침묵된 언어에서 해방되기 시작했다고 보며, 이후 제민일보에서 이 사건을 특별 취재하면서 숨어있던 기억을 광장으로 끌어내는 일련의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Ⅱ. 제주4·3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표현

이 장에서 다루려는 언어 표현은 특정 어휘라기보다는 제주사회에서 어떤 단어나 표현을 들으면 43사건임을 알 수 있을 것인가에 의미를 두었다. 그래서 이산과 수비대가 드러나는 구술자료를 통해서 43사건이 어떻게 기억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가족들의 죽음과 이산(離散)을 나타내는 표현

제주사람들의 강제적 이산(離散)은 43사건이 원인으로 작용한 타의적 이주를 계기로 해서 고향을 등지거나 가족과 이별해서 살아온 과정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43사건의 참상이라 하면 본인의 신체적 훼손, 정신적 충격, 가족의 죽음, 생활터전의 상실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이별과 이산을 표현한 문장들을 살펴보겠다.

[정실이나 ㄱ다시가 소개된 내려오니까 따로 살았어요. 그때 집이 불타가지고, 다 불태워 버렸거든에. 겨난 서로 따로 살았지. 저 몰래몰까지 소개되었어요. 그때 우리 고모님에 (거기 있었어요). 뭐 식구 이서 봤자 뭐 아버지 어머니하고 우리 동생하고 저하고 조카 하나 하고. 거기 가서 한, 일년 쯤끔 문 살았을 건데예. 몰래몰에 살다가 ㄱ다시로 올라왔는데 남편은 군대갔지예. -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388쪽.]

이 사례는 43사건 때문에 이산(離散)과 소개(疏開)하게 된 사실을 알려준다. 43사건으로 마을공동체가 붕괴되었으며 그 결과 문화와 역사기록이 소멸되어서 공동체의식을 정립할 수 있는 대상들이 소멸되었다. 이 사건 이후 마을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사라진 정신문화 복원에 힘쓰고 있다.

다음은 43사건으로 가족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때문에 가족들과 이별하게 되며, 의지를 잃어버려서 떠돌이 신세로 전락한 상황을 드러낸 표현들이다.

[남편이 피신해 버리자 위미지서에 잡혀 있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마을 주민과 함께 경찰에게 총살을 당해십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죽고, 아버지는 운이 좋아 총탄을 맞지 않은 거라마씸. -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196쪽.]

[그럭저럭 이 부락에서 이삼십 명 정도는 죽어실 거우다. 서방 내놓으라고 극성을 부리면 상 높고 폭발 꽃아 제사지내는 시늬를 하면서 별 지랄을 다해도 나중에 가서는 다 알아 가지고 그 예편[아낙네]까지도 다 죽여부렀수다. 나도 그때 산사람들에게 소, 말 20여 마리를 뺏겼수다. 와서 죽이켤 허는디 마음대로 가져가렌 허주 별 수 있수과? - 『이제사 말햄수다Ⅱ』, 197쪽.]

[귀순해서는 서귀포 수용소로 보내졌는데, 아이고, 여자아이 혼자 왔는 것을 그곳에서도 불쌍하게 여겼는지 어디 갈 곳이 있으면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데리고 살겠다는 늙은 노부부가 있어서 그 집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당시 그 할머니 할아버지네는 나를 쇠태우리를 시켰습니다.

소를 몰고 드르(들판)에 나가면 눈물만 쏟아지고, 내 오빠와 올케, 어린 조카, 언니 두 사람, 어머니, 그리고 사촌과 사촌 올케, 사촌 조카 등을 다 잃었으니 우리집은 완전히 대가 끊어져버린 것이지요. -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48-49쪽.]

43사건의 참상이라면 민간인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의 죽음을 목격한 것과 가족의 해체 동기가 된 것이다. 여동생들의 식모살이는 물론 본인도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유 없이 아버지의 연행, 구속, 죽음에 대한 분노, 원인제공자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기억 등이 한 평생 따라다녔다.

오늘날 이주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초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제주 사회에서 사회적·정치적 이유로 강제 이주가 시도된 것은 43사건이다. 그 결과 가족들 간의 이산(離散)을 경험하게 되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주와 가족과 이별하게 된 이산의 기억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구술자료에서 찾아보았다.

의사소통은 언어의 기능에 속하며, 침묵도 의사소통 수단이지만 43사건 이후 제주사회는 말할 수 없는 현실에 동조하고, 침묵으로 동참했다. 이때 침묵은 소통부재, 소통거

부, 소통방해 등을 내포한다. 그런데 침묵은 단절과 소통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서 영혼이 살아있음을 침묵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동안 제주사람들에게 43이라는 단어는 사어(死語)로 묻어둔 지뢰와 같았다. 즉 제주사람들은 이 사건을 은폐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의식 속에서 지우기를 강요받았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마을 수비대를 알려주는 표현

43사건 때 여성들이 마을 수비대원으로 동참해서 성담을 쌓고 보초를 서는 등 마을 수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알려주는 표현들이 있다.

[우리 동네에선 처녀들도 매일 아침 조회하고, 훈련을 받았죠. 사격연습에 열 지어서 왔다갔다 하는 훈련도 했어요. - 『만병디에 묻힌 진상과 증언』, 108쪽.]

[민보단 활동들을 했어요. 여자들, 신흥1리도 초소가 여섯 군데데 여성초소가 세 군데 있었어요. 성 안 쪽으로 성에다가 초소막 하나씩 해서 세 군데가 여성이고, 세 군데가 남성 초소였습니다. 남성은 50~60대로 나이든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없고, 밤에 일본놈 총 99식 둘러메서 초마다 파견 나가는 거 젊은 여자 아이들이 했지요. 남자들은 전 시 때니까 군대 가서 제대 못해가지고 있으니까 여자들은 18세부터 30세까지 복장은 아무거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초소 근무했어요. 초소까지 성담을 쌓으면 이만한 구멍 3곳을 만듭니다. 그 위에 여자들 둘 씩 올라가지고 그 구멍으로 밖을 보는 거라. 밤에. 낮에는 일주도로에만 신흥리 같은 곳은 도문, 서문이 있고 북문이 하나 있고, 남자들만 낮에 근무했어요. 그때 여자들도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임신해도 갖지요. - 『그늘 속의 43 - 死. 삶과 기억-』, 124~125쪽.]

[내가 민보단에 있을 때 토벌도 갔어요. 남자 한 명에 여자 여덟 해서 9명이 1개 소대인데 철창을 메고 토벌을 나가요. 가다가 총소리가 빵 한 번 나면 그게 준비고, 두 번

나면 완전무장한. 세 번 나면 돌격허라 쏜라 이거여. 조천서 근무도 사고[서고], 토벌도 나가주.

총소리가 세 번 나면 돌격허라고 교육은 반양 가주만 총소리가 나면 돌격은 고사하고 발발 떨어. - 『이제사 말함수다I』, 91쪽.]

3편의 사례에서 보듯이 43사건이 일어나자 각 마을에서는 자발적으로 여성과 남성들이 힘을 모아서 성담을 쌓고 순번제로 보초를 서는 등 마을 경비에 참여했다. 또한 여성도 민보단으로 입단해서 군사훈련을 받고 마을 방어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즉 ‘성담 쌓기, 보초, 경비, 초소, 사격훈련’ 등 43사건 관련어들이 보인다.

43사건은 제주도라는 특정 공간에서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발생한 사건이다. 여기에 국가권력이 개입하면서 도화선이 되었고, 전 지역은 초토화(정신적 초토화 포함)되었다. 따라서 침묵의 언어 제공자(43사건을 은폐하려는 사회)가 43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침묵된 언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Ⅲ. 살아남은 자들이 기억하는 언어

이 장에서 논의하려는 언어 표현은 43사건을 경험한 당사자와 가족들이 오랫동안 기억해 왔던 공포와 두려움, 회한 등을 알려주는 대화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예비검속과 연좌제 등을 통해서 어떻게 침묵해 왔는지, 살아남은 자로서 의도적 침묵 정도, 후손들이 기억하는 표현 등을 다루고자 한다.

1. 예비검속의 피해를 알 수 있는 표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제주사회는 또한번 전쟁의 공포에 휩싸였으며, 43사건 관련자들을 한번더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검속하기 시작했다. 43사건 경험자들은 예비검속이 자신들에게 이별과 죽음을 가져다 준 공포의 언어로 기억하고 있었다.

[오빠가 예비검속에 걸려 바다에 간 죽었젠 허난 우리 어명이 우리집으로 들어오명 완전 기절해연. 아버지는 게도 나이라도 사십칠세까지 살았는데 스물 으둡벳기(스물여덟 밖에) 안 된 아들을 기둥으로 삼양 살아와신디 우리집 대들보인데 그 대들보가 부러지난 ‘우리집은 이제 폭삭 망했구나.’ 허명 우난. 난 그때 처녀 때주게. -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197쪽.]

위 사례를 통해 아버지, 오빠와 생이별을 하고 죄의식 속에 한평생을 살아온 유가족들의 기억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전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예비검속으로 43사건은 제주 사람들에게 검거, 구속, 죽음 등의 언어로 기억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예비검속은 43사건을 상징하는 표현에 해당되며, 이 사건으로 수감되거나 사망한 사람들도 있다. 이 언어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해 7월~8월에 예비검속이라는 미명하에 43사건에 휘말렸던 사람들-훈방과 석방 대상자-을 대상으로 하여 다시 소환해서 조사한 것을 뜻하며,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서 억울하게 사망한 사람들이 많다.

2. 연좌제는 공권력의 횡포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현

다음은 43사건이 연좌제의 원조가 되고, 부모의 죽음으로 가정이 해체되거나 고통스런 삶을 살아온 이야기이다.

[오십년 대난 이제 우선은 선생님은 모자라니까 초등학교에 강사로 나오라고 해서. 경허난 양성소에 삼개월 교육받았주. 경허연 이젠 강습 받으믄 당장 정교사가 될 건디. 경찰에서 신원조회를 헌디, 아버지가 43 때 돌아가부난 강습을 받을 수 엇덴 허는 거라. 죄가 엇어도 돌아가시난 다 붉은 줄이라.]

우리 남동생은 그것 때문에 대학에 입학해도 군인도 못 가고 허난 일본 가 불었주. 공부도 못한 거, 직장도 못 다닌 거 아 그게 제일 서러운 거라. -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194~197쪽.]

연좌제는 한국인들에게 족쇄로 작용했으며, 제주사람들에게는 천형에 가까운 형벌이었다. 정부에서는 1980년대에 공식적으로 연좌제 폐지를 선언했지만 이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제주사람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43사건의 잔영이다. 연좌제를 실감한 유족들은 43사건이 현재로 기억되는 침묵의 언어이다. 이들은 죄인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취급받아 온 사람들이며, 어떤 형태의 화해 손짓도 의심스럽고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자식에게까지 검은 그림자를 드리운 연좌제라는 43사건 관련 언어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가위놀림이었을 것이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붉은 줄’은 억울하지만 이를 거부하기에는 자신들이 너무나 미약한 존재임을 절감하는 표현이다.

3. 살아남은 자들의 의도적 침묵 표현

43사건이 발생한 후 1950~1960년대에 이 사건 경험자들의 생생한 체험을 기록하고 들을 수 있었다면 직설적 표현, 비유적 표현 등 언어적 요소들을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약 50년 이후에야 침묵된 언어들이 침묵 깨기로 등장하고 있어서 그 당시의 용어와 표현 등을 짐작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다. 즉 43사건 경험자들의 기억재현 과정에서 감정 절제나 용어 순화, 보편적 용어 사용 등이 일상화되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당시 상황을 직접적으로 유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며, 이것이 이 연구의 제한점이기도 하다.

다음 사례는 43사건 때 이유도 없이 남편을 잃고 가장으로서 참담한 세월을 살아온 어머니의 고통을 알 수 있는 감정 표출이다. 어린 자식들을 키우기 위하여 과거는 기억 속에 묻어두고 살아왔는데 ‘이제 내 말하겠습니다’라는 표현처럼 당시를 기억하고 억울함과 회한을 표현하고 있다. 처음에는 내가 왜 피해자인가 생각했지만 어디 가서 확인하거나 잘못된 사람을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람은 주변의 그 누구도 자신의 궁극증이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3사건으로 살아남은 자들은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남편은 서른 살에 돌아가시고, 나는 스물여덟 살 때 혼자 뉘넌 그때가 우리 아들이 일곱살이고, 큰딸이 네 살, 작은딸 난에 열흘만에 아버지 었언.

이제 내 말하겠습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밀항으로 가젠 허단 영 댘습니다. 그때가 아이고 아기들 어린 때, 요거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때, 또 요거는 3학년, 아들은 중학교고. 경험 이젠 내비뉘에 나 말 허젠 허믈 다 못해. -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 의 삶 그리고 역사』, 242쪽.]

다음 사례는 43사건 당시를 생각하면 ‘징징하다’는 표현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었던 상황임을 알게 해 준다. 화자인 어머니는 43사건 때문에 남편과 자식을 잃게 된 사실을 기억조차 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43사건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의도적 침묵을 강요한 대상이다. 즉 살아남은 자들이 속 시원히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없는, 자신들이 피해자이고 얼마나 억울한지 어떤 심리적 고통을 겪었는지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억압의 대상으로 비춰졌다.

[그 얘길 들어 무엇 허젠? 생각하믄 징징하여…]

나 인간이 아니라. 그때 자식 죽이고. 나올 때 하나는 물에 빠전 죽어불고.

우리 애기아방은 소태 시끄러워져 가난 일본으로 갔다 거기서 죽언. -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200쪽.]

다음 사례는 부모를 잃고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43사건 경험자의 일생이 드러난다. 또한 남편을 잃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고생하면서 침묵의 언어로 기억하는 어머니의 일생을 자식의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으로 가족의 죽음을 알 수 있는 언어들 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흐루 아침에 고아가 돼 가지고 고생한 (생각을 하면). 그때 소녀 가장이 되었주. 우리 친정이 종가집이라서 제사가 열여섯 번인데 다 나가 했어요. 우리할머님은 그때 칠십둘 인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43사건) 정신이 혼미하고 집안 어른들은 다 돌아가셨지예. -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282쪽.]

다음은 증언자들의 재기억을 통해 43사건의 상처를 어떻게 인지해 왔는지 알 수 있는 사례이다. 즉 ‘43사건 발발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억울하다’ 등 강렬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43사건 경험자로서 지금까지 자신의 기억을 밖으로 표출해 보지 않았는데 처음 증언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친척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43사건 때문에 자신의 일생이 불행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사회와 국가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잘못했다는 언어적 보상도 없으니까 개인의 운명으로 인식하게 됨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거 정말, 난생 처음이에요. 이렇게 부끄럽고, 쓸데없는 얘기, 남한테 하는 거. 43이나 뭐나 남한테 내 얘기를 안 하는데. 부모한테도 이려고, 세상한테도…. 그렇게 좋게 산 기억이 없어요. 너무나 속상하게 살아온 세월이 많으니까는 나만 모자라서 이런가 보다

생각도 들고요.

정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와서 사과한 거로 영혼들이 그런 걸 다 알아서 편안히 다
눈 감고 다 계실 건가? 할아버지, 할머니, 외삼촌까지 다 돌아가시게 한 43이, 난 아직
도 43이 왜 일어났는지 납득이 안가요. - 『그날 속의 43 - 死 삶과 기억-』, 47쪽.]

다음 이야기는 구술자가 용기를 내고 가슴에 묻어둔 분노와 원망을 밖으로 표출하려
는 시도를 보여준다. 자신이 경험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표현해도 알아 줄 사람도 없고,
치유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미리 진단하고 침묵해 왔으나 지금은 이런 마음속의 감정을
속 시원히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내 말은 원, 할 말은 그것뿐이지. 옛날 과거의 말, 억울한 말,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
있어? 그래도 억울하다는 말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
자’들』, 44쪽.]

다음 구술자는 43사건의 간접 경험자로서 직접 경험자의 고통 정도를 전달해 준다.
즉 자식을 잃고 그 원망을 한 번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우리 부모들의 입장을 보여준
다. 이런 표현이 침묵된 언어라 할 수 있다.

[아들들 때문에 어머니 고생이 말이 아니었주. 자식들이 전부 그렇게 됐는데 생각해봐.
어느 어머니 마음이 편하겠어.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하루도 편하지 않았다고 하지. 그
래서 살아생전에 사태 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 『빼앗긴 시대 빼앗긴 시절』, 483쪽.]

다음 이야기는 위의 3편과 좀 다르지만 43사건의 직접 경험자로서 육체적 고통에 대
한 보상만이라도 바라고 있다. 이는 정신적 고통은 아주 큰데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석하고 싶다.

[나는 매 맞는 보상이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다 이젠 일도 못하고... -

『만벵디에 묻힌 진상과 증언』, 105쪽.]

위 사례를 통해 살아남은 자들의 침묵은 여러 형태로 표출됨을 보았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아픈 기억을 말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을 모르겠다. 표현하지도 않았고, 표현할 수도 없었지만 그런 사실이 너무 억울하다. 지금도 가슴속에 쌓인 분노와 슬픔 등을 표출하고 싶은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굳이 사회적 보상을 기대한다면 육체적 보상 정도이다. 사실은 정신적 상처와 그에 대한 보상이 더 크지만 경험자들은 정신적 고통은 차치하고, 먼저 신체적 고통을 표출하려는 의식도 있다.

4. 후손들의 기억 재현을 알 수 있는 표현

제주지역에는 최소한 죽은 가족에 대한 예우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헛봉분을 만들고, 사망한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절망감을 위로하며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많다. 또한 마을에 따라 같은 날 제사지내는 집이 많다는 사실은 43사건이 제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 준다.

다음 사례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부모와 이별하고 자손의 도리도 다할 수 없었던 현실의 처참함을 잘 드러낸 표현들이다. 3편의 사례를 통해 부모의 죽음 이후 시신도 거두지 못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는지 죽음의 모든 것을 모른 채 살아온 후손들의 재기억 과정을 알 수 있다.

[(아버님은) 잡혀가니까 그걸로 끝이지요. 어디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도 아버지 묘를 가묘로 쓰고 있습니다. 밭에다가 헛봉분을 만들어서 당시 아버님이 입었던 옷을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139쪽.]

[그래서 입자 없는 묘가 이거 이거 몇 개라고 하니까 우린 아무 거라도 골라서 우리 묘라고 한 거죠. - 『만벵디에 묻힌 진상과 증언』, 111~112쪽.]

[48년 43사건 난 그해 겨울에 동귀 사람들에게 “산에 낭허레[나무하리] 가라” 허영 낭허연 오난 이젠 저녁에 공회당에 모이라 허영 모이난 몬딱 차에 폭폭 싣거간 저 자운 당에 강 죽여분 거라, 동짓달 스무이렛날이 스물일곱 밧디[곶] 시께[제사]난, 그날이 동짓달 스무여드렛날이라. -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102쪽.]

위 사례와 유사한 표현으로 ‘백조일손(百祖一孫)’이 있는데 이것도 침묵된 언어에 속한다. 『7·7만행디 예비검속 희생자 자료집-만행디에 묻힌 진상과 증언』을 보면 ‘증언록/유족은 말한다’는 제목으로 ‘메도, 술도, 소분도 같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는 같은 날 여러 사람이 사망해서 제사와 별초를 공동으로 한다는 뜻이다.

백조일손은 예비검속으로 첫알오름 학살터에서 많은 조상들이 집단학살당하고 매장되었기 때문에 뼈들이 영켜 있어서 개개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조상은 많고 자손은 하나라는 뜻으로 알려진 언어이다. 이는 제주도에만 있는 43사건 관련 언어이다.

위 사례 이외에도 살아남은 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사건의 참상을 기억하고 있다. 어느 경험자는 한밤중에 끌려가면서 금방 돌아오겠다는 아버지의 말을 유언으로 간직하고 있다. 어떻게 살다보니까 지금까지 왔다는 이야기, 지금 와서 세상에 드러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체념섞인 이야기, 억울함을 호소하면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 등을 들 어보면 침묵된 언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43사건의 해결 방안에 해당된다.

43건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지도 못하고 억울함을 가슴에 묻어둔 채 돌아가신 가족들을 생각하는 남은 유족들의 슬픔은 어떤 빛깔일까? 이렇게 곁으로 드러나지 않은 표현들이 43사건 관련 침묵된 언어라 할 수 있다.

재난이나 전쟁이 발생하면 주로 여성과 어린이의 피해가 크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졌다. 43사건과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의 경험과 피해 정도를 측정하여 비교해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기존에 채록된 구술자료 중심으로 대화문을 발췌하여 침묵된 언어 표현들을 살펴보았다.

침묵에는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침묵과 온몸으로 표현하는 비언어적 침묵을 들 수 있다. 또한 타의적으로 상처입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43사건의 피해자가 있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주인공으로 ‘진아영’이 있다.

‘진아영’은 일생동안 무명천으로 턱과 얼굴을 감싸고 살아서 ‘무명천할머니’라 불렸으며 그의 사후에는 생전에 살던 집을 「무명천할머니기념관」(한림읍 월령리 소재, 진아영을 위한 기념관)으로 만들었다. 진아영은 43사건 때 턱에 총상을 입고 일생을 아래턱이 없이 살다가 죽었다. 진아영의 외형은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자신이 침묵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신체의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진아영의 생전 모습 재현〉

이와 같이 침묵을 강요하고, 고통의 기억으로 살아남은 언어들에 있으면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언어들에 등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43사건의 기억을 치유할 수 있는 대화의 언어로 등장한 것들로 용서와 화해, 진상규명, 명예회복, 상생, 평화의식, 위령제, 위령탑(위령비), 예비검속 희생자 원혼 위령비, 43유족회, 명예졸업장 등을 들 수 있다.

IV. 결 론

구술자료에 표현된 43사건 경험자들의 언어를 통해서 침묵된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침묵도 언어의 한 종류이다. 단순히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함으로써 강한 의사를 표현할 때 또하나의 언어가 된다. 43사건을 경험하고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 속에는 분노, 억울함, 이별한 부모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등 복합적인 감정들이 남아 있다. 43사건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험한 역사적 사실이며,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은 분노의 숙제라고 본다. 따라서 43사건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살아남은 자로서 마음의 빚을 청산하고 싶은 욕망을 분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필요한 것이다.

제주사회에서는 오랫동안 43사태로 불렀는데 1990년대 들어와서 43사건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43사건을 ‘사태’로 인식해서 폭도들의 반란으로 규정되어 왔으나 피해자가족들이 명예회복을 요구하면서 용어가 변경되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화해, 용서, 상생’이 제주사회에서 화두가 되었다. 이는 43사건을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제주사람들은 43사건을 주로 시국(한국전쟁도 시국이라 함)이라 표현했으며, 이러한 시국의 언어(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시국이 어수선하다’는 표현도 쓰임)는 치유되어야 할 기억의 역사이다.

43사건을 알 수 있는 언어 표현을 통하여 43사건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지금까지 이 언어들이 주관적 언어(직접 경험자 중심의 표현)였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객관적 사회어(사회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언어 표현)가 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찾아보고 사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본다. 이는 단순히 43사건 관련 언어라고 규정지어 버리면 사건의 기억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머물게 되므로 이를 보편화시켜서 사회어로 논의하는 것이 화해와 상생의 방법일 것이다.

의식과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43사건이라는 유혈전쟁을 역사적 기억으로만 남기려면 이를 기억하고 현재의 의식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43사건 관련 구술자의 경험과 기억에 의한 언어사용은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위

축되었던 기억의 분출로 볼 수 있다. 잃어버린 마을, 학살터, 살아남은 자들이 기억하는 공간 등은 사건에 대한 집단 기억의 장소이다. 침묵된 언어가 광장의 언어로 전환되려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고백, 화해, 용서의 시간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자료

- 오성찬 편집(1991), 『사삼사태로 반 죽었어, 반!』, 뿌리깊은나무.
-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4·3은 말한다1/2』, 전예원.
- 제민일보 4·3취재반(1995), 『4·3은 말한다3』, 전예원.
- 제민일보 4·3취재반(1997), 『4·3은 말한다4』, 전예원.
-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4·3은 말한다5』, 전예원.
- 제주4·3 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편(1994),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2001~2003), 『제주 4·3사건 자료집1-11권』.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2008), 『화해와 상생: 제주 4·3위원회 백서』.
- 제주4·3연구소 편(2009), 『그들 속의 4·3』, 2009, 선인.
- 제주4·3연구소 편, 김창후(2010), 『대마도를 떠도는 4·3녘』, 각.
- 제주4·3연구소 편, 허영선(2006), 『제주4·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제주4·3연구소(1989), 『이제사 말함수다1』, 한울.
- 제주4·3연구소(1989), 『이제사 말함수다2』, 한울.
- 제주4·3연구소(2002),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역사비평사.
-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4),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6), 제주여성의 생애: 살암시난 살았주.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2009), 『제주여성문화유적100』.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2007), 『제주여성무형문화재의 생애: 전통 맥향』.
-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제주발전연구원(2008), 『제주여성문화유적』.
- 조성윤·지영임·허호준(2007), 『빼앗긴 시대 빼앗긴 시절-제주도 민중들의 이야기』, 선인.
- 7·7만행디유족회(2002), 『7·7만행디 예비검속 희생자 자료집-만행디에 묻힌 진상과 증언』.

□ 논문 및 단행본

권귀숙(2006), 『기억의 정치』, 문학과지성사.

김동춘(2006), 『전쟁과 사회: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개정판), 돌베개.

김환기 편(2006), 『제일 디아스포라문학』, 새미.

박찬식(2008), 『43과 제주역사』, 각.

윤인진(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출판부.

윤택림(2010),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아르케.

이병혁 편저(1986), 『언어사회학서설 : 이데올로기와 언어』, 까치.

제주43연구소 사이트.

조은(2003), 「냉전문화 속 여성의 침묵과 기억의 정치화」, 『전쟁과 여성』, 71-87쪽.

진순희(2005), 「강요된 침묵에 저항하는 양태-노라옥자켈러의 『중군위안부』와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제3호, 329-358쪽.